

41. 악기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성문하협착

성별 여 **나이** 45세 **직종** 악기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김○○는 1986년 악기제조사에 입사하여 후렘반에서 2001년 10월까지 작업하였는데, 작업 중 먼지와 경화제의 자극적인 냄새를 맡아 왔으며, 근무 중 코피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받아 오다가 2003년 4월에 성문하협착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300명 내외가 근무하며 악기 제조를 위한 재료 입고 → 각 부위의 조립 → 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근로자의 업무는 피아노의 기본 뼈대인 후렘(Frame)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었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 9시까지 근무하였다. 2000년에는 후렘연마에서 기타 분진이 1.0 - 1.1 mg/m³이었다.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분진의 경우 4시간, 2-Butanone peroxide는 36분- 107분, 기타 유기용제는 2시간동안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분진은 0.66 - 0.67 mg/m³ 이었고, 2-Butanone peroxide와 benzene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toluene, xylene, MEK, MIBK, styrene 등이 미량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김○○는 음주력, 흡연력은 없었으며, 입사 전에는 건강하였으며, 입사하고 1-2년 후부터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마스크는 쓰고 일을 하였으며, 코피 나고 얼마 안 있어 숨이 차기 시작하였는데, 평소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자주 잠겼다고 한다. 1999년 6월 특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및 신장질환을 진단받았고, 현재 당뇨와 고혈압 치료 중이다. 성문협착으로 진단되어 작업장에서 노출된 자극성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수진 내역을 검토한 결과, 피부질환, 폐렴, 기타 전신적인 점막의 염증 소견, 관절이상 등이 동반되는 베그너 육아종과 유사하였다.

4. 결론: 근로자 김○○는

- ① 입사한지 2년 이후부터 코피, 성대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다양한 전신증상이 발생하였고, 2003년 성문협착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동반된 전신적인 증상들로 보아 김○○의 질환은 베그너 육아종일 가능성이 높으며,
- ③ 작업환경평가 결과에서도 자극성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낮아, 이 근로자의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급성 성문하협착은 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